

# 척:척(Chuck)

## 수무브 x 댄스플라츠 (Korea)

안무 및 출연\_ 박민영  
음악\_ 이태현  
드라마투르기\_ 김진혁  
기획 및 컨셉\_ 수무브 (박수열)

<척:척(Chuck)>은 박민영이 직접 경험한 일상적인 위압과 폭력을 주제로 합니다.

안무가는 두 파트로 구성된 작품에서 일련의 몸짓을 통해 자유를 갈망 하면서도 '안정'을 강요받거나 추구하며 스스로를 제약하는 모습과 고통을 직시하고 자유를 실천해나가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표현합니다.

안과 밖의 경계인 문지방 틈에 발이 묶인 채 몸부림치는 모습, 가슴이 강하게 움켜쥐어지거나 입을 틀어막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 등이 떠오르는 동작들은 작가가 정형화된 교육 체계, 결혼과 출산 등을 겪으며 마주한 장면들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요. 작품은 난해한 동작 대신 직설적인 표현과 문지방 위에 갇혀있던 신체가 넓은 초원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는 직설적인 구성을 통해 과거, 현재, 미래의 자신을 재현합니다.

## Traveling

## 데시그나레 무브먼트 (Korea)

안무\_ 유호식  
움직임 리서치 및 출연\_ 김가현

이 작품은 팬데믹 시기에 유호식과 김가현 함께 구상한 작품이며 2022년 대구댄스하우스에서 초연을 시작으로 폴란드 <자비로바냐 댄스 씨어터 페스티벌>에 초청받은 작품이다.

제한된 삶은 우리에게 답답함을 안겨주었고 답답함이 주는 불편함은 어느새 익숙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작자와 퍼포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여행을 시작하기로 한다.

구슬이 퍼포머의 몸을 타고 움직일때 어떤 움직임과 표현들이 나올까 라는 상상력에서 부터 시작이되어 궁극중이 생겼고, 구슬과 나를 동일화시켜 몸속을 트레블링 하려한다. 구슬이 몸을 지나칠때 나타나는 즉각적인 반응들을 겹겹이 쌓아 움직임을 구체화시키고 수많은 결합과 해체를 통하여 창작자와 퍼포머는 우리만의 로드맵을 형성하고자 한다.

f designaremovement

ig designaremovement

✉ designaremovement@gmail.com

📍 대구시 중구 달성로22길 31-12 대구예술발전소 수창홀

☎ 010 5629 2501

🎫 전석 2만원

공동주최 데시그나레 무브먼트 X 수무브 X 피와이댄스  
협력 Hung Dance (대만)  
후원 National Culture and Arts Foundation (대만)

프로그램 디렉터 유호식 박수열  
진행 박연아  
코디네이터 서정빈  
메니저 김소정  
조명디자인 권연길  
사진 최중수

티켓예매



프로그램



SU  
MO  
VE

PYDANCE



National Culture and Arts Foundation

2024 한국 x 대만 현대무용 교류전

# DIVERSITY



# DIVERSITY

데시그나레 무브먼트 / 수무브 / 피와이댄스 / Hung Dance

2024. 1. 13 (Sat) 5:30pm

대구예술발전소 수창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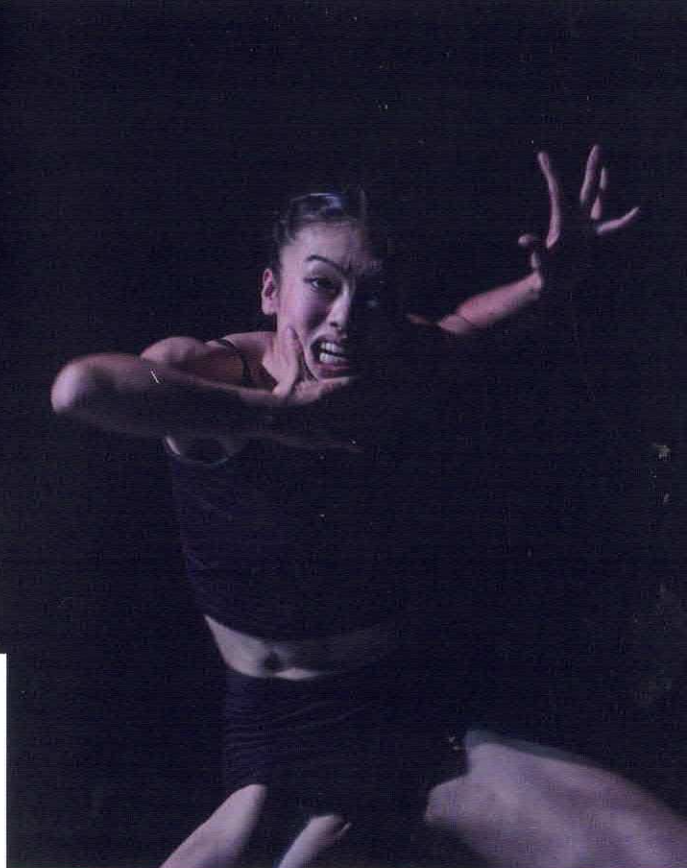


# What is DIVERSITY?

대구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데시그나레 무브먼트와 수무브, 피와이댄스가 공동 주최하는 2024 다이버시티는 지역 민간 현대무용단의 국제 무용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2024년 1월 13일 (토) 대구 예술발전소 수창홀에서 개최합니다.

Diversity 는 다양하고 참신한 현대무용 작품들을 대구 관객에게 소개하는 플랫폼이며 올해는 대만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대무용단 Hung Dance 의 리허설 디렉터와 무용수를 역임하고 있는 “정 이한”의 솔로 작품 <Miss Shape> 을 선보이며, 데시그나레 무브먼트(안무 : 유호식)의 <Traveling>, 수무브 x 댄스플라츠 (안무 : 박민영)의 <척:척(Chuck)>, 피와이댄스(안무 : 서정빈)의 <Nun> 총 4작품을 선보입니다.

향후 대구와 타 국가에서 활동하는 젊은 현대무용가들 간의 교류의 역할을 매년 진행할 계획입니다.



## Nun

PYDance (Korea)

안무\_ 서정빈

조안무\_ 남희경

출연\_ 김소정, 박진아, 배세은, 이예림, 김민서, 남희경

무릎 위의 눈이 보는 세상이 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은밀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키 낮은 눈이 숨겨진 세상을 탐험하도록 내버려두어도 될까.



## Miss Shape

Hung Dance (Taiwan)

안무 및 출연\_ 정 이한

조명 디자인\_ 우이루

후원\_ 국립문화예술재단

여성으로서 나는 '올바른 몸매'로 인해 위험에 처해 있고, '잘못된 몸매'로 인해 악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현대무용의 유려함과 팝핑의 임팩트 있는 테크닉을 결합함으로써 나는 시선을 다시 세상으로 돌려 다음과 같은 탐구를 합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하는가?

